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드디어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너무 따뜻해서 영상 10도가 넘는 날도 있었고 눈 대신 비가 내리는 황당한 날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춥고 눈이 많이 내린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일찍 농사를 시작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오히려 3월초에 영하 10도의 늦추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시기가 더 늦어졌습니다.

겨울동안 다블랏과 함께 난방용 온풍기를 비닐하우스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자가제작 온풍기여서 같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열효율이 좋지 않아서 며칠 시험가동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폐유를 완전연소시키는 방식이라서 정비소 등에서 무상으로 폐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농사는 예전처럼 육묘시설에만 일부 전기를 사용하여 육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프로그레스 마을에 올라가서 몇시간씩 일하고 내려오는 일상이 이제 저도 익숙해지고 있고 다블랏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고아원 아이들도 와서 한번씩 흠을 만져보고 송아지도 안아보고 할 수 있겠지요.



안경사역은 일단 안경원 개원을 잠시 미뤄두고 약간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공포된 의료관련 법안에 따르면 안경원 개원을 위해 현지 전문 의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모든 장비와 렌즈들도 인증을 받아야 안경원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 법적용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절차가 투명해지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기까지는 이전의 사역을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법인 중 한 곳과 함께 동역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설립한 현지 병원인데 현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 함께 주기적으로 의료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이동진료를 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안경사역으로 만난 현지 사역자들의 추천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동 진료의 목적이 주로 현지 사역자들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서로 간 동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쪽에서도 안경사역의 필요를 알고 있고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서로의 사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일단 6월초 이동진료에 참여하고 추후 자세한 내용들을 서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 사역자가 지역 행정기관들과의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확인후 저희가 사역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이상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탈라스 안경사역의 행정처분에 관여한 사람들이 갑자기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초 현지 정보기관 수장과 그의 측근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현재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정보기관 수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해임사태에 보건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역시 정보기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작년 12월에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잘랄아바드 지역에서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던 현지 회사도 갑자기 부지 강제 수용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당황했었는데 이번 해임사태

이후 강제수용 결정의 취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땅에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두 손 모읍니다.

감사하게도 아내와 아이들은 지난 2월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자 갱신이 늦어져서 예정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가야 했지만 무사히 병원 진료도 마치고 비자 연장도 순전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이는 폐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들과 면역억제제 조절을 위해서 다음 진료는 3개월후인 5월 초로 잡혔습니다. 5월초에는 아내도 추적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5월에도 좋은 결과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 사이버대학의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과정을 아내가 공부했었는데 2월에 마침내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0년전에도 도전했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병원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잠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이번이 아니면 또 후회할 것 같아 견뎌내기로 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인근 대만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부탁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돌아올 무렵 고아원 원장님이 개인적인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가까이 지내온 고려인 아이가 사춘기이기도 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저희가 출석하는 회사에도 데려가도 좋으니 아이의 마음을 안정만 시켜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매일 만나 회사 청년 모임에도 참석하고 청년센터에도 데리고 가서 영어와 한글수업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아이가 다니는 직업학교에 코이카 봉사단으로 파견나온 한국 자매가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내와 미리 한글을 공부한 덕분에 수업시간에 우수학생으로 돋보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주 전부터는 주일 오전과 오후 모두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도 아이의 표정이 밝아져서 너무 만족해하시고 저희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련의 과정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그 아이와 언니, 오빠 모두 고아원에서 자라는 모습을 봐 왔는데 이제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내와 아이들이 매일 회사와 고아원, 센터를 오가는 목적으로 사용할 차량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중심으로 모두 30분 거리에 있어서 걸어다니기에는 힘들고 택시를 타기에는 한방향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왔다갔다 반복해야 해서 택시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차량교체를 위해 재정을 모아주신 금액중 남은 잔액에 부모님이 부족한 부분을 더해 주셔서 깨끗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저 역시 이번 주에 어렵사리 준비한 5년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 통상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심사절차가 종료되고 가부간 답변을 받게 되는데 신원조회가 끝나면 인터뷰도 있다고 합니다. 심사 과정을 잘 통과하여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 단기제목

1. 3 월 중순 신청한 영주권 심사 과정을 위해.
2. 아내가 돌보게 된 고려인 아이의 구원을 위해.
3. 아내와 하늘이의 5 월 진료 일정을 위해.

#### 중장기 제목

1.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2. 안경사역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3. 다블랏 가정과 농업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4. 한글 수업을 통해 아내가 섬기는 아이들과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5. 더불어 사는 사람들 현지 지부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 개인과 가정 제목

1. 아내 갑상선 암과 하늘이 전신 경화증 치료를 위해.
2. 지성과 인애의 대학생활과 진로를 위해.
3. 부모님들의 건강.
4. 매형 최겨레 씨의 건강을 위해서.